

성경의 맥잡기 – Chapter 1. 창조와 족장 시대

D.P.Joshep 2010-06-07 22:50:08

조회 27 스크랩 0

창세기는 모든 일들이 다 최초인 내용들이며 그리고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두 번째 파트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파트의 첫 번째 사건은 천지 창조입니다.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고 2장에서 7일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정녕 다시 말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장에서 보면 사단의 유혹으로 최초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란 히브리어로 '사람'이란 뜻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라는 최초의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너, 잘 있니." 혹은 "나와의 관계는 건강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죄책감입니다. 그런 죄책감에 빠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주십니다. 이것이 훗날 신약의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예표입니다.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의 실패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최초의 살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5장에서 아담의 족보, 10장에서는 노아의 족보,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 데, 이는 성경이 실제 사건임을 증명해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6장부터 9장까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데, 비는 40일 주야로 내렸고 150일 동안 땅은 물에 가라앉혀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이 방주로 들어가서 살았는데, 방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지간에 죄를 지어도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또한 방주는 상자처럼 생겨서 천장에만 창이 달려있는 데,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데,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집단으로 도전하고 계속 모이기만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여러 개로 흩어버리셔서 이 모이려는 집단을 흩어놓으셨습니다.

그 후 12장부터는 창세기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는 사건 중심이 아닌 인물 중심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본토 아비 및 친척의 집을 떠나라 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런 철저한 순종에 하나님께서는 3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복들은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임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신앙에는 2%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형의 자식인 조카 롯을 데려간 것입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을 보면 롯은 범죄도시의 대명사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는 데, 이 당시에는 그 땅이 인간의 시각으로는 살기 더 좋았기에 그 곳을 선택하고 자연스레 아브라함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지만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308번이나 등장하며 구약성서 5권, 신약성서 11권에서 그의 이름이 인용되며, '열국의 아비',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방백', '복의 근원' 등의 별명을 갖게 됩니다. 14장에서는 성경 최초의 전쟁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나가 전쟁에 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인 십일조를 드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15장에서는 6절에 기독교의 핵심으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기독교의 핵심인 '이신칭의'에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개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서 보면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이 클 것을 의미합니다.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오는 데, 바로 11년 동안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나이 86세에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13년 동안 단절됩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데, 원래 '아브람'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개명시키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18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방문함으로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

케 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롯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19장에서는 롯이 천사들을 접대하는 데,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롯의 가족을 구해주지만, 욕심의 눈이 먼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19장에서 보면 롯은 한 번도 하나님께 경배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의 신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롯은 결국 자신의 딸들과 잠자리를 같이하여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20장에서는 믿음이 부족한 아브라함이 그랄왕 아비멜렉을 속여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21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낳게 됩니다. 그 후에,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는 데, 33절을 보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엘샤다이(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 구절을 봄으로서 대단한 순종은 믿음에 근거해서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이 모여지고 잘 정리되었을 때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스토리로 유명한 모리아산의 시험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계속적으로 자식 이삭을 강조함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런 가장 사랑하는 것을 뛰어 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시험을 치르는 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잘 치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23장에서는 사라가 죽게 되고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종인 다메섹 엘리에셀의 충성으로 이삭과 그의 배우자 리브가가 만나게 됩니다. 25장에서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자식으로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며 신앙이 부족한 에서는 압압한 야곱에게 장자권을 팝니다. 26장에서는 이삭도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데, 거짓말을 통하여서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다시 되찾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물을 양보하는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이삭이지만 백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27장에서는 속임수로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아내는 야곱의 모습이 보입니다. 28장에서는 에서의 화를 피하기 위해서 600km의 여정인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 '벧엘'에서 구름다리의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야곱의 दिल은 자신을 보호해주시는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하는 것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지는 않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면 십일조를 하겠다고 서원합니다. 29장부터 31장부터 사기의 대가인 라반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다. 그러면서 장차 이스라엘 지파를 이루게 될 11명의 자식들을 4명의 부인에게서 낳습니다. 32장에서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압박'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지만, 환도뼈 부상을 당함으로서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주시고 나서 축복을 주십니다. 이 씨름에서 천사는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는 데, 이것은 야곱 자신의 정체성을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33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 만남으로서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야곱은 도주하여 '세겜'이란 곳에서 살게 됩니다. 34장에서는 딸 '디나'의 강간사건과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누이 '디나'를 강간한 족속을 모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35장에서 보면 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예전에 하나님께 서원한 '벧엘'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은 예배의 실종입니다. 이삭과 유모인 드보라,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37장에서는 창세기의 마지막 주요인물인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의 꿈과 아버지의 독점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38장에서는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일어나고 39장에서 노예생활과 죄수생활을 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39장에서 41장까지는 감옥에서 신통한 꿈 해석을 해주게 되고 이것이 파라오에게까지 들려와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39장 2절에서 감옥에 갇힌 요셉을 보면 인간으로 관점으로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 3절과 2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에 형통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어느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형통해 질 수 있습니다. 42장에서는 7년의 흉년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내려오게 되는데, 요셉의 꾀로 형 시므온이 볼모로 붙잡혀 있고 43장에서는 야곱의 내려놓음으로 사랑하는 자식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또다시 44장에서 요셉의 꾀인 '은잔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냐민이 볼모로 잡힐 위기에 처했으나 형 '유다'의 용기로 벗어나게 됩니다. 45장에서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제들과 상봉하며, 46장에서는 요셉과 야곱이 이집트에서 상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7장에서는 야곱이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서게 되는 모습이 나오

고 48장, 49장에서는 야곱이 요셉의 자식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시작해 야곱의 자녀들에게 축복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장에서 야곱이 죽게 됩니다. 야곱의 죽음 이후 과거 일로 보복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요셉의 형들은 야곱의 거짓 유언으로 두려움을 모면하려 합니다. 이미 이때에는 요셉이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벌에 벌벌 두려워하지 않는 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